

제57권: 2009. 9. 2.

농업 및 농가경제 전망 2009~2019

조영수 박상미

요약	1
1. 머리말	3
2. 농업 및 농가소득 전망	5
부록	14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내용 문의: 조영수 부연구위원 02-3299-4337 yscho@krei.re.kr
박상미 연구원 02-3299-4190 psm801@krei.re.kr
자료 문의: 이성규 (정보플라자) 02-3299-4213 sklee@krei.re.kr

- 『KREI 농정연구속보』는 정책 담당자, 농업인, 연구자 등 수요자에게 신속히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연구 결과를 간결하게 정리한 것입니다.
- 이 자료는 우리 연구원 홈페이지(www.krei.re.kr)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요 약

□ 농업기반 및 농가교역조건

농업기반의 축소와 농가교역조건 악화 추세는 지속될 전망이다. 경지면적은 전망기간 동안 연평균 0.7% 감소하고, 농가호수, 농가인구 및 농림업취업자수도 각각 연평균 1.4%, 2.7%, 2.9%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농업투입재비와 노임은 각각 연평균 1.7%, 1.6% 증가하나, 농가 판매가격의 증가율은 연평균 0.6%에 머물 것으로 예상된다.

□ 농업부문 부가가치

2008년 농업부문 부가가치는 유가 상승과 사료비 인상 등으로 중간투입재비가 크게 상승하여 2007년 대비 8.4% 감소하였다(재배업 부문 -3.2%, 축산업 부문은 -28.2%).

2009년은 농산물 가격이 전반적으로 연초 전망보다 강세를 띠고, 유가와 국제곡물가격이 2008년 대비 하락하면서 중간투입재비가 하락 또는 안정됨에 따라 부가가치가 축산업 부문 주도로 2008년 대비 10.1% 증가할 전망이다.

중장기적으로 농업부문 부가가치는 축산업 부문의 증가와 재배업 부문의 감소가 서로 상쇄되면서 과거보다 낮은 수준에서 정체 또는 완만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 농가소득

2008년 농가소득은 농업소득과 이전수입(특히 비경상소득)의 감소로 2007년 대비 4.5% 감소하였다(2008년 통계청의 신규 표본개편으로 과거 자료와의 직접적인 비교에는 주의가 필요하다).

2009년은 경기침체에 따른 농외소득과 이전수입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농업소득이 2008년 대비 14.1%의 큰 증가폭을 보여 농가소득은 전체적으로 3.2%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장기적으로 농가소득은 2010년 이후 경기가 회복되면서 농외소득이 빠르게 증가하고, 호당 농업소득도 농업총소득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농가호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면서 완만한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어, 전체적으로 연평균 2.1% 증가할 전망이다.

1. 머리말

지난 상반기 글로벌 금융시장의 잠재적 불안요인에도 불구하고 각국의 적극적인 경기부양책 등으로 세계경제가 회복할 조짐을 보임에 따라 국내 경제에 대한 전망이 지속적으로 수정되고 있다.

본 속보는 OECD(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FAPRI(Food and Agricultural Policy Research Institute), EIA(Energy Information Administration) 등 주요 전망기관의 최근 자료와 한국은행이 「2009년 하반기 경제전망」에서 제시한 거시경제지표 전망을 반영하여 올해 초 「농업전망 2009」에서 제공했던 농업 및 농가경제 전망을 수정한 내용을 담고 있다.

단기 전망을 위해서는 본 연구원의 품목관측팀의 의견을 반영하였고 중장기적으로는 KASMO(Korea Agricultural Simulation Model) 모형을 이용하여 전망치를 도출하였다.¹

그러나 국내외적으로 국제곡물가격과 원유가격의 변동, 기상여건에 따른 작황과 가격의 변동, 최근 정부의 쌀시장 개입 등 향후 농산물시장의 불확실성 요인이 다수 존재하므로 본 전망 결과는 제한적으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1.1. 주요 거시경제지표 가정

인구는 통계청의 장래추계인구를 이용하였다. 실질 GDP 성장률, 소비자물가의 2009년과 2010년 전망치는 한국은행의 「2009년 하반기 경제전망」을 이용하였고, 중장기 전망치는 자체적으로 추정하여 전망기간 동안

¹ 2009년 품목별 수급 및 가격 동향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본 연구원의 농업관측정보에서 얻을 수 있다.

각각 연평균 4.1%, 2.7% 성장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GDP 디플레이터는 단기적으로는 OECD의 *Economic Outlook*, No. 85를 이용하였고 중장기적으로는 자체적으로 추정하여 전망기간 동안 연평균 2.4% 증가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생산자물가는 자체적으로 추정하여 전망기간 동안 연평균 1.7% 증가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원/달러 환율은 2009년은 1,250원/달러, 2010년 이후는 1,100원/달러 수준이 지속되는 것으로 가정하였고, 국제원유가는 EIA(Energy Information Administration)의 자료를 이용하여 연평균 6.7% 증가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²

표 1-1. 주요 거시경제 지표 전망

단위: %, 원/달러, 달러/배럴

	'05-'07 평균	2008	전 망			연평균 변화율(%)	
			2009	2014	2019	'08-'09	'09-'19
인구 ¹	0.3	0.3	0.3	0.1	0.0		0.1
GDP 성장률 ¹	5.1	2.2	-1.6	4.3	3.8		4.1
GDP 디플레이터 ¹	0.4	2.1	4.7	2.5	2.3		2.4
소비자물가 ¹	2.4	4.7	2.9	2.7	2.4		2.7
생산자물가 ¹	1.1	8.6	1.9	1.7	1.6		1.7
원/달러 환율	969.7	1,103.4	1,250	1,100	1,100	13.3	-1.3
국제원유가 ²	59.8	95.6	56.9	101.9	109.2	-40.5	6.7

주 1. 전년대비 변동율임.

2. 세계 평균 현물가격, FOB

자료: 통계청, 한국은행, OECD, EIA

2 올해 초 농업 및 농가경제 전망에서는 국제원유가에 대한 전망의 불확실성으로 전망기간 동안 71달러/배럴 수준이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하였으나, 본 속보에서는 EIA의 전망자료를 이용하여 보다 현실적인 가정을 도입하였다. 이에 따라 국제원유가격의 영향을 크게 받는 주요 투입재가격에 대한 전망도 전반적으로 상향 조정되었다.

1.2. 주요 정책변수 가정

주요 정책변수로는 쌀의 경우 2005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소득보전직접지불제를 반영하되 현행 목표가격이 전망기간 동안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하였고, 2014년까지 관세화가 유예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현재 과실류 일부 품목에 적용되고 있는 식물검역조치에 대해 사과, 배, 복숭아의 경우 2015년부터 해제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농산물 시장개방과 관련하여 한미 FTA와 한EU FTA 타결결과가 2010년부터 이행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2. 농업 및 농가소득 전망

2.1. 농업투입요소가격 전망

2008년 투입재가격은 비료비, 사료비, 영농광열비 및 영농자재비 등 전반적인 농가구입가격의 증가로 2007년 대비 20.5% 상승하였다. 2009년 투입재가격지수는 국제유가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2008년 145.0에서 136.6로 5.8%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표 2-1. 농업투입요소가격지수 전망 (2000=100)

	'05-'07 평균	2008	전 망			연평균 변화율(%)	
			2009	2014	2019	'08-'09	'09-'19
투입재*	117.2	145.0	136.6	154.8	161.3	-5.8	1.7
(경상재)	122.4	161.5	150.8	173.5	180.7	-6.6	1.8
(농기구)	108.7	119.4	114.3	126.1	131.5	-4.3	1.4
농업노임	122.9	135.1	133.6	145.4	157.2	-1.1	1.6

* 투입재는 경상재와 농기구의 가중평균이고, 경상재는 종자류, 비료류, 농약류, 영농광열, 영농자재가격지수를 가중평균한 것이다.

자료: 통계청

중장기적으로 농업투입요소가격지수는 계속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투입재가격은 2009년 136.6에서 2019년 161.3으로 연평균 1.7%(경상채 가격 1.8%, 농기구 가격 1.4%), 농업노임은 2009년 133.6에서 2019년 157.2로 연평균 1.6%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2.2. 농가판매가격 전망

2008년 전체농산물 농가판매가격지수는 채소와 과실의 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하여 2007년 대비 2.0% 하락하였다. 곡물은 7.6% 상승했으나 채소와 과실은 각각 11.2%, 16.0% 하락했고, 축산물은 한육우의 가격하락으로 전체적으로 2007년 대비 0.3%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9년은 채소, 과실, 축산물의 주도로 전체농산물 판매가격지수가 2008년 대비 10.8%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재배업 중 2008년 가격 하락폭이 컸던 채소와 과실은 각각 14.8%, 13.8% 상승하여 2007년 수준 정도로 가격이 회복되고, 축산물은 전반적으로 가격이 크게 올라 2008년 대비 21.1%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장기적으로 농가판매가격지수는 전체적으로 2010년 약간의 조정이 있은 후 2019년까지 채소와 축산물 주도로 연평균 0.6%로 완만히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곡물(쌀)과 과실 가격은 2009년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 내지 정체할 것으로 예상된다.

표 2-2. 농가판매가격 지수 전망 (2005=100)

	'05-'07 평균	2008	전 망			연평균 변화율(%)	
			2009	2014	2019	'08-'09	'09-'19
전체 농산물	100.2	99.4	110.1	113.4	116.6	10.8	0.6
곡물	98.6	107.8	107.4	94.8	87.8	-0.4	-2.0
채소	104.7	96.9	111.2	129.9	139.1	14.8	2.3
과실	99.1	83.1	94.5	94.5	92.9	13.8	-0.2
축산물	96.5	93.0	112.6	117.9	125.6	21.1	1.1

자료: 통계청, 한국농촌경제연구원 KASMO(Korea Agricultural Simulation Model).

2.3. 농가호수, 농가인구, 농림업취업자 전망

2009년 농가호수는 2008년 대비 1.3% 감소한 119.6만 호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 이후로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19년에는 2009년보다 15만 7천 호 줄어든 103.8만 호에 이를 전망이다.

농가인구는 2009년 310.1만 명으로 2008년 대비 2.7%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 그 이후 농가인구는 연평균 2.7% 감소하여 2019년에는 지금보다 약 74.8만 명이 적은 235.3만 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농가인구가 감소함에 따라 총인구 대비 농가인구 비율도 계속 낮아져 2008년 6.6%에서 2019년에는 4.8%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농림업취업자수는 농가인구의 감소와 농업부문의 상대적으로 낮은 GDP 성장으로 지속적인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다. 특히 2009년은 2008년 농업 부문 GDP가 크게 감소하여 농림업취업자 수가 전년 대비 5.8% 감소한 153.8만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2010년 농림업취업자수는 2009년 농업부문 GDP가 큰 폭으로 상승하여 2009년과 비슷한 수준인 154.1만 명으로 전망되지만, 그 이후 비농업 부문의 경기가 활성화되어 농업부문 GDP 성장이 상대적으로 저하되고 농가인구가 감소하면서 농림업취업자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19년에는 114.1만 명에 이를 전망이다.

표 2-3. 농가호수, 농가인구, 농림업취업자

	단위	'05-'07 평균	2008	전 망			연평균 변화율(%)	
				2009	2014	2019	'08-'09	'09-'19
농가호수	천호	1,249.7	1,212.1	1,195.8	1,120.6	1,038.6	-1.3	-1.4
농가인구	천명	3,337.3	3,186.8	3,101.2	2,706.4	2,353.1	-2.7	-2.7
농가인구비율	%	6.9	6.6	6.4	5.5	4.8		
농림업취업자	천명	1,712.5	1,633.1	1,538.3	1,337.3	1,143.9	-5.8	-2.9

자료: 통계청, 한국농촌경제연구원 KASMO(Korea Agricultural Simulation Model).

2.4. 농지 이용구조의 변화

2009년 경지면적은 2008년보다 1.8만 ha 감소한 174.1만 ha로 예상된다. 경지면적 감소세는 과거보다는 둔화되기는 하지만 비농업용으로의 농지 전용 등으로 연평균 -0.7% 수준의 감소세가 계속되어 2019년 경지면적은 163.0만 ha로 전망된다.

경지면적 감소에도 불구하고 농가호수와 농가인구가 더 큰 폭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어, 농가호당 경지면적은 2009년 1.46ha에서 2019년 1.57ha로, 농가인구당 경지면적도 2009년 56.1a에서 2019년 69.3a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일부 품목(곡물의 밀, 콩, 채소 및 과채류의 양파, 양배추, 파, 호박, 토마토, 메론, 풋고추, 과실류의 복숭아, 기타품목 중 인삼, 녹차, 화훼, 버섯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작물 재배면적이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쌀의 경우 재배면적이 2009년 92.9만 ha에서 연평균 1.0% 감소하여 2019년에는 84.3만 ha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경지이용률은 2006년 이후 다소 증가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경지면적 감소율이 재배면적 감소율보다 다소 높아 중장기적으로 104~105%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표 2-4. 경지이용 추이와 전망

구분	단위	'05-'07 평균	2008	전 망			연평균 변화율(%)	
				2009	2014	2019	'08-'09	'09-'19
경지면적	천ha	1,802.0	1,758.8	1,740.6	1,676.1	1,629.7	-1.0	-0.7
농가호당 경지면적	ha	1.44	1.45	1.46	1.50	1.57	0.3	0.8
농가인구당 경지면적	a	54.0	55.2	56.1	61.9	69.3	1.7	2.1
국민1인당 경지면적	a	3.7	3.6	3.6	3.4	3.3	-1.3	-0.8
경지이용률	%	103.3	104.3	104.6	104.4	104.8		

자료: 통계청, 한국농촌경제연구원 KASMO(Korea Agricultural Simulation Model).

표 2-5. 작물별 재배면적 추이와 전망

단위: 천ha

	'05-'07 평균	2008	전 망			연평균 변화율(%)	
			2009	2014	2019	'08-'09	'09-'19
쌀	961.7	935.8	929.0	873.3	842.5	-0.7	-1.0
곡물류(쌀제외)	230.5	209.4	214.0	198.2	196.8	2.2	-0.8
채소류	289.2	275.5	267.8	258.8	245.9	-2.8	-0.8
과실류	153.7	153.7	153.3	157.4	153.8	-0.2	0.0
특용·기타작물*	243.8	259.8	257.2	262.0	268.6	-1.0	0.4
합계	1,879.0	1,834.2	1,821.4	1,749.6	1,707.5	-0.7	-0.6

* 특용작물(참깨, 들깨, 땅콩)과 기타작물(인삼, 녹차, 화훼, 버섯)을 포함한 재배면적임.

자료: 통계청, 한국농촌경제연구원 KASMO(Korea Agricultural Simulation Model).

2.5. 농업부문 부가가치 전망³

2008년 농업부문 부가가치는 한국은행에 따르면 2007년 대비 8.4% 감소한 19.6조 원으로 나타났다. 재배업 부문은 2007년 대비 3.2% 감소하여 16.5조 원에 이르나 축산업 부문은 전년 대비 28.2%나 감소하여 3.2조 원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부가가치가 이처럼 큰 폭으로 떨어진 것은 유가 상승과 사료비 인상 등으로 중간투입재비의 상승에 원인이 있는데, 한국은행 자료에 따르면 재배업 부문의 중간투입비는 2007년 대비 10.3% 증가했고, 축산업 부문의 경우 중간투입비는 2007년 대비 32.1%나 증가했다.

그러나 2009년 부가가치는 농산물 가격이 전반적으로 강세를 띠고, 유가와 국제곡물가격이 2008년 대비 하락하면서 중간투입재비가 하락 또는 안정됨에 따라 과거(2005~2007년 평균)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재배업과 축

3 농업부문 부가가치는 한국은행에서만 발표하고 있어 본 속보는 부가가치의 경우 한국은행 자료를 이용하고 있다. 농업부문 생산액의 경우 한국은행과 통계청이 발표하고 있으나 자료의 세분화 및 접근 용이성 등으로 통계청 자료를 이용하고 있다. 한국은행 자료는 통계청 자료와 같이 세분류되어있지 않고 내부자료를 이용해야 하는 제약이 있어 필요한 경우에 한해 참고하고 있다. 한편 농가경제 자료는 통계청이 발표하고 있다.

산업 부문 모두 2007년 수준을 회복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축산업 부문의 경우 사료비 부담이 과거보다는 높은 상황이지만 한육우를 중심으로 돼지, 가금류의 사육두(수)가 2008년보다 크게 증가하고 가격이 높게 형성되어 올해 초 전망보다 성장률이 크게 상향 조정되었다.

중장기적으로 농업부문 부가가치는 과거보다 낮은 20.1~20.2조 원 수준에 머물 것으로 전망된다.

재배업 부문은 부가가치가 계속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농업기반이 지속적으로 축소되고 농산물가격 상승률이 투입재가격 상승률에 미치지 못하는 데 그 원인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표 2-1, 2-2 참조).

축산업 부문의 경우 국제곡물가격이 안정되면서 사료비 증가율은 정체되지만, 양돈과 낙농 부문이 계속 축소되고 한육우와 가금을 중심으로 전망 초·중기 가격 조정이 있으면서 부가가치가 하락하다가 그 이후 가격이 회복되면서 부가가치가 다소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표 2-6. 농업부문 부가가치 전망

단위: 조원

	'05-'07 평균	2008	전 망			연평균 변화율(%)	
			2009	2014	2019	'08-'09	'09-'19
농업	22.0	19.6	21.6	20.1	20.2	10.1	-0.7
재배업	17.0	16.5	17.2	16.3	16.2	4.7	-0.6
축산업	4.9	3.2	4.4	3.8	3.9	38.3	-1.1

자료: 한국은행, 한국농촌경제연구원 KASMO(Korea Agricultural Simulation Model).

통계청에 따르면 2008년 농업생산액은 쌀과 축산물 생산액의 큰 증가폭에 힘입어 2007년 대비 10.9% 증가한 38.5조 원으로 나타났다.⁴

4 한국은행은 2008년 농업생산액이 2007년 대비 3.5%(재배업 0.8%, 축산업 9.1%) 증가한 것으로 집계하여 통계청 발표와 차이를 보이고 있다. 부문별 집계에서도 특히 과일류 생산액의 경우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2007년 대비 6.2% 증가했으나 한국은행은 오히려 13.0% 감소한 것으로 집계하고 있다.

재배업 부문은 쌀의 주도로 전체적으로 2007년 대비 생산액이 6.3% 증가하였다. 쌀 생산액의 경우 생산량 증가와 높은 가격으로 인해 2007년 대비 19.4%의 큰 증가폭을 나타냈고, 과실류와 특용작물 등도 전반적으로 생산량이 증가하거나 가격이 높아져 생산액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채소류는 과채류를 제외하고 전반적으로 생산액이 감소하였다.

축산업 부문은 사료비 상승 등으로 한육우를 제외한 다른 축산물의 가격이 크게 상승하여 생산액이 2007년 대비 20.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9년에도 축산업 부문 중심으로 성장세가 지속되어 농업생산액이 2008년 대비 6.3% 증가한 40.9조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재배업 부문의 경우 쌀 생산액은 생산량 감소와 가격 하락으로 2008년 대비 7.0% 하락하지만 다른 품목들의 증가로 전체적으로 2008년 대비 0.8%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축산업 부문은 한육우를 중심으로 돼지, 가금류의 사육두(수)수와 생산량이 전반적으로 증가하고 가격이 높게 형성되어 생산액이 2008년 대비 16.4%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중장기적으로 농업 생산액은 재배업과 축산업 부문 모두 2010년 다소 하락했다가 다시 완만하게 증가하여 2019년경에는 2009년 수준을 회복할 것으로 예상된다.

쌀을 포함한 곡물류의 생산액은 지속적으로 하락하나, 과채류를 포함한 채소류와 인삼, 화훼류 등은 계속해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축산업 부문은 2010년 가격 하락으로 생산액이 감소했다가 한육우와 가금의 주도로 다시 완만하게 증가하며, 전망기간 동안 과거보다는 매우 높은 15.4~15.6조 원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표 2-7. 농업부문 생산액 전망

단위: 조원

	'05-'07 평균	2008	전 망			연평균 변화율(%)	
			2009	2014	2019	'08-'09	'09-'19
농업	30.5	38.5	40.9	40.2	40.8	6.3	0.0
재배업	23.4	24.9	25.1	24.8	25.2	0.8	0.0
쌀	8.3	9.4	8.7	7.2	6.4	-7.0	-3.1
곡물류	1.1	1.2	1.4	1.1	1.2	15.3	-1.7
채소류	7.3	7.2	7.7	8.8	9.3	6.9	1.9
과실류	3.0	3.0	3.1	3.1	3.2	4.6	0.1
기타	3.9	4.1	4.1	4.5	5.2	0.6	2.4
축산업	11.6	13.6	15.8	15.4	15.6	16.4	-0.1

자료: 통계청, 한국농촌경제연구원 KASMO(Korea Agricultural Simulation Model).

2.6. 농가소득 전망

통계청은 2008년 농가소득이 농업소득과 이전수입(특히 비경상소득)의 감소로 전년 대비 4.5% 감소한 30.5백만 원에 이른다고 발표하였다.⁵ 2009년은 경기침체에 따른 농외소득과 이전수입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농업소득이 전년 대비 14.1%의 큰 증가폭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어 농가소득은 전체적으로 3.2% 증가한 31.5백만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중장기적으로 농가소득은 2010년 이후 경기가 회복되면서 농외소득이 빠르게 증가하고, 호당 농업소득도 농업총소득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농가호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면서 완만한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어, 전체적으로 연평균 2.1%의 증가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5 통계청의 2008년 신규 표본개편에 따른 시계열단층 현상으로 과거 자료와의 직접적인 비교에는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영농형태별 농업소득 추산이 동일 기관의 생산비조사와 상반된 결과를 보이는 경우도 있어 2008년 농가소득은 제한적으로 해석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예를 들어 논벼농가의 농업소득은 2007년 대비 6.8% 감소한 것으로 집계하고 있으나 생산비조사결과에 따르면 단위면적당 소득은 27.3%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축산농가의 경우도 농업소득이 2007년 대비 11.5% 증가한 것으로 추산하고 있으나 축종별 생산비 조사결과와 한국은행의 축산업 부문 부가가치 조사결과를 고려할 때 이러한 증가폭은 이의의 여지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표 2-8. 농가소득 전망

단위: 백만원

	'05-'07 평균	2008	전 망			연평균 변화율(%)		
			2009	2014	2019	'08-'09	'09-'19	
농가소득	31.6	30.5	31.5	34.3	38.7	3.2	2.1	
농가호당농업소득	11.4	9.7	11.0	10.5	11.3	14.1	0.2	
농외 소득	겸업소득	2.7	2.9	2.6	3.5	4.4	-9.8	5.3
	사업외소득	7.6	8.5	8.3	10.2	12.2	-1.2	3.9
	합계	10.3	11.4	11.0	13.7	16.6	-3.4	4.2
이전수입*	9.8	9.5	9.5	10.1	10.8	-0.1	1.3	

* 이전수입은 이전소득과 비경상소득의 합계임.

자료: 통계청, 한국농촌경제연구원 KASMO(Korea Agricultural Simulation Model).

[부록]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투입재가격지수	120.4	145.0	136.6	140.4	144.7	149.3	152.0	154.8	156.9	158.1	159.2	160.2	161.3
경상재	125.8	161.5	150.8	155.0	160.5	166.6	170.0	173.5	176.0	177.3	178.5	179.6	180.7
농기구	111.4	119.4	114.3	117.4	120.0	122.6	124.4	126.1	127.6	128.6	129.6	130.5	131.5
농업노임	125.3	135.1	133.6	135.9	138.3	140.7	143.0	145.4	147.8	150.1	152.5	154.9	157.2
농가판매가격지수	101.4	99.4	110.1	108.4	109.8	111.2	112.6	113.4	114.5	115.1	115.7	116.1	116.6
곡물	100.2	107.8	107.4	101.7	99.4	97.6	96.2	94.8	93.5	92.0	90.6	89.2	87.8
채소	109.1	96.9	111.2	119.0	121.1	125.9	127.9	129.9	132.4	134.1	135.9	137.5	139.1
과일	98.9	83.1	94.5	95.5	95.5	95.2	95.1	94.5	94.0	93.4	93.2	92.9	92.9
특용작물	114.7	115.3	117.6	114.6	126.3	131.6	138.9	142.8	147.7	151.1	154.3	156.9	159.5
축산물	93.3	93.0	112.6	109.1	111.3	113.5	115.8	117.9	120.0	121.6	123.0	124.3	125.6
농가호수(천호)	1,231.0	1,212.1	1,195.8	1,180.3	1,166.9	1,152.4	1,137.0	1,120.5	1,103.0	1,088.1	1,072.4	1,055.8	1,038.3
농가인구(천명)	3,274.0	3,186.8	3,101.1	3,015.5	2,938.1	2,860.8	2,783.5	2,706.1	2,628.8	2,559.7	2,490.7	2,421.6	2,352.6
농림업취업자(천명)	1,670.0	1,633.0	1,538.3	1,541.2	1,480.5	1,427.5	1,381.8	1,335.5	1,290.9	1,249.5	1,213.4	1,177.1	1,140.9
경지면적(천ha)	1,781.6	1,758.8	1,740.6	1,727.5	1,713.7	1,699.5	1,687.8	1,676.1	1,665.5	1,656.1	1,647.1	1,638.3	1,629.7
경지이용율(%)	103.1	104.3	104.6	104.9	104.4	104.2	104.2	104.4	104.5	104.6	104.7	104.8	104.8
재배면적(천ha)	1,855.9	1,834.2	1,821.4	1,811.4	1,789.1	1,771.6	1,759.2	1,749.6	1,741.1	1,732.9	1,724.6	1,716.2	1,707.5
쌀	950.3	935.8	929.0	910.3	898.7	888.3	880.1	873.3	866.7	860.5	854.4	848.4	842.5
곡물류(쌀제외)	212.5	209.4	214.0	212.6	204.9	201.5	199.6	198.2	197.9	197.9	197.8	197.5	196.8
채소류	277.5	275.5	267.8	269.5	268.1	264.1	261.5	258.8	256.0	253.5	251.0	248.4	245.9
과실류	154.1	153.7	153.3	154.0	155.3	156.2	156.9	157.4	157.5	157.1	156.1	155.0	153.8
특작, 기타	261.6	259.8	257.2	265.0	262.0	261.4	261.2	262.0	262.9	263.9	265.4	266.9	268.6
합계	1,855.9	1,834.2	1,821.4	1,811.4	1,789.1	1,771.6	1,759.2	1,749.6	1,741.1	1,732.9	1,724.6	1,716.2	1,707.5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생산액(조원)	34.7	38.5	40.9	39.8	39.8	40.0	40.1	40.2	40.4	40.5	40.6	40.7	40.8
재배업	23.4	24.9	25.1	24.6	24.6	24.7	24.8	24.8	25.0	25.0	25.1	25.1	25.2
축산업	11.3	13.6	15.8	15.2	15.2	15.3	15.3	15.4	15.4	15.5	15.5	15.6	15.6
부가가치(조원)	21.4	19.6	21.6	21.1	20.6	20.4	20.2	20.1	20.1	20.1	20.2	20.2	20.2
재배업	17.0	16.5	17.2	16.7	16.5	16.4	16.3	16.3	16.3	16.3	16.3	16.3	16.2
축산업	4.4	3.2	4.4	4.4	4.1	4.1	3.9	3.8	3.8	3.9	3.9	3.9	3.9
농가소득(백만원)	32.0	30.5	31.5	31.9	32.3	33.0	33.6	34.3	35.1	36.0	36.9	37.8	38.7
농업소득	10.4	9.7	11.0	10.8	10.5	10.5	10.5	10.5	10.6	10.8	10.9	11.1	11.3
농외소득	11.1	11.4	11.0	11.5	12.1	12.7	13.2	13.7	14.3	14.8	15.4	16.0	16.6
겸업소득	3.0	2.9	2.6	2.8	3.0	3.2	3.3	3.5	3.7	3.8	4.0	4.2	4.4
사업외소득	8.1	8.5	8.3	8.7	9.1	9.5	9.8	10.2	10.6	11.0	11.4	11.8	12.2
이전소득	5.0	5.3	5.3	5.3	5.4	5.6	5.7	5.8	6.0	6.1	6.3	6.4	6.5
비경상소득	5.5	4.2	4.2	4.2	4.2	4.2	4.3	4.3	4.3	4.3	4.3	4.3	4.3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정연구속보』 발행 목록

2009년

- 제57권 농업 및 농가경제 전망 2009~2019 (조영수, 박상미)
- 제56권 농림사업의 연령제한 실태와 개선방안 (최경환)
- 제55권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재개의 영향분석 (허덕, 이정민, 이형우)
- 제54권 기후변화에 대한 농업계의 인지도 조사 결과 (김창길, 주현정)
- 제53권 국제곡물가격이 곡물가공품 가격에 미치는 파급시차 (김태훈, 김배성)

2008년

- 제52권 농업·농촌에 대한 2008년 국민의식 조사결과 (김동원, 박혜진)
- 제51권 미국 '2008년 농업법'의 주요 내용과 의미 (어명근)
- 제50권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의 경제적 피해 계측 (우병준, 이형우, 황윤재, 김진년)
- 제49권 미국산 쇠고기 수입확대의 파급 영향과 시사점 (허덕, 이정민)
- 제48권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이 양계산물 가격에 미치는 영향 (허덕, 우병준, 이형우)
- 제47권 사료가격 상승이 양돈업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 (허덕, 김현중)
- 제46권 유가상승이 시설채소 농가에 미치는 영향 (정은미, 정학균, 김수림, 윤선희)
- 제45권 농업·농촌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결과 (김동원, 박혜진)

2007년

- 제44권 사육 여건 변화가 양돈소득에 미치는 영향 (허덕, 정민국, 김현중)
- 제43권 금년 김장철 채소 가격 및 김장 수요 전망 (박기환, 송성환)
- 제42권 해외 유기농산물 인증제도와 시사점 (신용광, 황윤재)
- 제41권 국내외 친환경농산물의 생산실태 및 시장전망 (김창길, 김태영, 이상건)
- 제40권 최근 소값 동향 분석 (허덕, 송주호, 정민국, 이정민)
- 제39권 농업·농촌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결과 (김동원, 박혜진)
- 제38권 미국 정부의 2007년 농업법 제안과 시사점 (임송수)
- 제37권 기후변화협약이 농업부문에 미치는 영향 (김창길, 김태영, 신용광)
- 제36권 농업법인의 운영실태와 제도개선방안 (김수석, 박석두)

2006년

- 제35권 농촌사회의 양극화 실태와 정책과제 (박대식, 마상진)
- 제34권 DDA 협상 중단의 의미와 전망 (임송수)
- 제33권 유가상승과 환율하락이 농업에 미치는 영향 (김병률, 김배성, 조영수, 이용호)
- 제32권 국내외 친환경농축산물의 생산 및 인증 실태 (김창길, 김태영)
- 제31권 미국의 FTA 농산물 양허방식과 시사점 (최세균, 허주녕, 박성진)
- 제30권 농업부문 한·칠레 FTA 이행 2년의 평가 (최세균)

2005년

- 제29권 김치 안전성 파동과 김장 수요 전망 (송성환, 김연중)
- 제28권 남북농업협력위원회 개최와 과제 (김영훈)
- 제27권 쌀 공공비축제 도입과 수확기 시장안정 대책 방향 (박동규)
- 제26권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소비자 인식과 태도 (강창용, 교육)
- 제25권 중국 위안화 절상이 국제 농산물 시장에 미치는 영향 (김배성, 최정섭)
- 제24권 농업·농촌기본법 개정의 배경과 주요 쟁점 (김정호)
- 제23권 한·칠레 FTA 이행 1년의 농업부문 평가 (최세균, 허주녕)
- 제22권 농업인의 의식 변화와 농정 현안에 대한 인식 (김동원, 박혜진)
- 제21권 친환경과실 소비 실태 및 전망 (김경필, 박미성)
- 제20권 독일과 프랑스 농민단체의 농정참여제도 (김수석)
- 제19권 신년공동사설을 통해 본 2005년 북한의 농정전망 (권태진)
- 제18권 우리나라 농산물 수출의 새로운 기회, 중국 (권오복)

2004년

- 제17권 농지제도 개편의 방향과 추진방안 (박석두, 송미령, 김수석, 김홍상)
- 제16권 쌀농가 소득·경영안정 직불제 도입과 양곡관리 제도 개편 (박동규)
- 제15권 2004년산 쌀 수급 및 가격 전망 (김명환, 김혜영)
- 제14권 쌀 협상 시한에 관한 견해 분석 (임송수)
- 제13권 국제유가 상승이 농업에 미치는 영향 (이용선, 김배성, 정학균)
- 제12권 기업농의 조건: 가능성과 전망 (김정호)
- 제11권 미 광우병 발생 이후 쇠고기 소비 변화 (신승렬, 송주호, 김철민)
- 제10권 농업협상 기본골격 초안의 평가와 시사점 (임송수, 서진교, 김상현, 임소영)
- 제9권 쌀 농업의 규모 효과와 구조 정책 (김정호)
- 제8권 일본과 대만의 쌀 시장개방과 시사점 (김태곤, 정정길)
- 제7권 친환경농산물과 관행농법의 생산비 비교 (김창길, 김태영)
- 제6권 최근 가축질병 발생이 육류 소비에 미친 영향 분석 (신승렬, 송우진, 이형우)

2003년

- 제5권 수요차별 수입쌀 구매의향 전망 (이계임, 김민정)
- 제4권 농가부채문제 진단과 중장기 대응방향 (박성재, 황의식)
- 제3권 미국과 EU의 가격·소득지지정책 (김태곤)
- 제2권 유럽연합의 2003년 개혁안과 농업협상의 관계 (임송수)
- 제1권 쌀 수매제도의 소득지지효과 (김명환)